

여성과 언론

김복규

대구중재부 중재위원,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낯설어 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을 바라본다. 중재위원으로 일을 시작한 첫해 속초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전국 15개 중재부 75명 위원 중 여성은 오로지 나 혼자라는 것이었다. 1) 우리 나라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론분야에는 상당한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터라 놀라움이 더욱 컸던 것이다. 그 후 중재사건을 다룰 때는 물론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더욱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관찰결과 나타난 사실은 우선 중재신청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여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 2)과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는 한정된 영역에만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신문의 경우는 생활, 가정 또는 여성 등으로 등장하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방송의 경우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외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주로 여성이 등장하고 있었다. 정치·경제·사회기사에도 거의 여성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어쩌다 등장해도 활동상이 보도된다기 보다는 거의 사생활에 가까운 내용만 보도될 뿐이었다.

무릇 언론의 기능은 사실 보도, 비판 및 계몽으로 축약된다. 사실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으로서 과장이나 축소 및 왜곡이 없어야 하고, 비판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언론의존도가 높은 시대의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언론의 계몽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그 어느 기능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선 보도의 경우 여성이 보도대상이 되는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언론이 고의적으로 여성을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라 취재대상의 범주에 드는 여성의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정치활동의 경우 우리나라는 역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한 비율이 1.97%이며, 현재도 3%에 불과하다. 3)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7%나 됨에도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간부 11만명 중 여성은 0.7%에 불과한 7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각 분야의 여성지도자와 관리자를 모두 합하면 4.4% 정도 되는데 이는 교원을 포함하는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31.9%가 포함된 수치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세계 102개 나라 중 83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게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언론이 여성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수이지만 보도대상이 되는 여성이 있고, 이들이 취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언론의 태도는 지나치게 개인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예가 허다하다. 지나간 일이지만 모 부처 장관에 여성이 임명되었을 때 그 장관이 하는 일 보다는 옷차림이나 언행에 관하여 지나치게 보도함으로써 개인을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 아직도 여성은 그의 역할로서 평가 받기보다는

그저 관심이나 호기심의 대상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비판의 잣대가 잘못 설정된 경우이다.

언론종사자의 경우도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간관리자급의 40%, 고급관리자급의 30%를 여성으로 충원할 목표를 가진 영국의 BBC 방송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신문과 방송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거의 대등 할 정도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취재기자의 경우 정치부나 사회부에서 여성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고, TV 나 라디오방송의 경우 진행자를 남녀 한 쌍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 진행자는 거의 남성이다. 더러 여성 진행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들이다. 언론관계 간담회나 세미나에 참석 해보아도 출석하는 언론관계자는 모두 남성이다(관리자급 이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며, 지식인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식인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사회에서는 20%의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인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이 20%중의 80%는 여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성의 가치를 아직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개방화시대의 지식사회에서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섬세한 창조력이 그 힘을 발휘할 것이며 세계문화에의 적응력이 국가경쟁의 무기가 될 것인데 이러한 특성이 남성보다 앞서는 여성의 활용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나 인색한 것이다. 이는 언론의 계몽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문이다.

굳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여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개방화시대의 세계무대에서 앞서가기를 원한다면 여성의 문제를 좀 더 예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소모적 존재가 아닌 생산적 존재로서의 여성,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고무적인 보도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신문의 머릿기사에, 방송의 헤드라인 뉴스에 여성이 등장하고 이러한 보도를 여성이 지휘 하는 사회가 멀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다음 임기에는 중재위원회도 여성이 절반쯤은 선임되기를 기대해본다.

주

1) 현재는 1999년 3월 전국 10개 중재부에 각 1명씩 9명의 여성위원이 선임되어 총 10명의 여성위원이 활동중이다. 이는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 30%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현재 중재위의 여성위원 비율은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11.2%를 약간 상회하는 13.3%이다).

2) 중재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1997년 9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중재부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신청인이 여성인 경우가 2건이었고, 여성이 피신청인으로 참석 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3) 여성의원 9명 중 7명은 전국구의원이며 지역구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여성의원이 40.4%이며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각각 36.4%와 33%를 기록하고 있다.